



金容元 大宇電子(株)社長/本會 非常勤副會長

'90年代를 맞이하여

庚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大宇電子를 아껴주신 電子振興誌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해는 나라 안팎으로 政治·經濟·社會 全般에 걸쳐 엄청난 變化를 겪었으며 이에 따라 企業經營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습니다.

다가오는 '90년 우리經濟環境도 여전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높아진 임금수준, 원화질상, 각 지역별로 높아져가는 블러化 경향 등 기업을 둘러싼 狀況은 소위 말하는 '危機意識'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大宇電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發展하는 企業이라면 危機狀況을 오히려 企業내실을 다지고 革新的 變化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底力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웠던 지난 한 해 동안 大宇電子가 品質管理大賞과 貿易의 날 金塔產業勳章을 수상한 것은 이러

한 고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大宇電子는 '90년 새해를 希望차게 設計할 수 있습니다.

大宇電子는 '90년 새해를 맞아 危機克服은 바로 企業内部的 革新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우선 그 實踐方案으로 開發, 製造, 生産에 이르는 전과정의 리드타임을 半으로 대폭 줄이고 각종 會議나 서류 등을 50% 節減하는 管理革新方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現 상황에 대한 勞使間의 합의도출이 危機克服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 생각하고 勞使쌍방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제거, 활기찬 조직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輸出部門에서는 先進國의 무역장벽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東歐圈을 포함한 新市場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物量爲主의 輸出政策에서 탈피, 產出성을 고려한 質的爲主의 輸出로 轉換하며, 現地工場生産을 擴大함으로써 輸

出의 質的擴大를 꾀하고 있습니다.

內需部門에서는 市場開放擴大, 輸出業體들의 內需轉換 등으로 치열한 競爭이 예상되는 바 새로운 販賣方式의 導入, 物流 및 유통구조의 現代化, 서비스체제의 대폭강화 등으로 서비스경쟁에서 優位를 확보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System 사업, 복합제품사업 등에 積極參與 高附加價值 산출에 노력할 것입니다.

研究開發部門에 과감한 投資를 통해 획기적인 商品, 消費者에게 가장 필요한 商品 즉 히트상품 중심으로 製品革新을 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돌이켜보면 '80년대는 大宇電子에 있어 變身과 跳躍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새로이 시작되는 '90년대 첫 해를 맞아 大宇電子는 '品質第一主義, 消費者第一主義'의 경영이념을 갖고 세계속의 大宇電子로 成長해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